

24. 1. 18.
기후위기 대응 현장 간담회

모두 말씀

2024. 1. 18. (목)

금융위원장
김주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호남지역 기업 대표님들과
정책금융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정부와 민간은 힘을 모아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은
기후환경 변화에 얼마나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195개의 모든 당사국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로 하였고
이에 각국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설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실사 의무화 지침 등은
단순히 환경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통해
'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작년 4월에 확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투자금액은
'50년까지 2,097조원에 달해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금융권도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① 우선,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은 에너지원이기에 신재생에너지 대량 공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은행권과 정부가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② 다음으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아직 민간 참여가 부족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③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저탄소 생산설비를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의견들은 유관부처와 함께 고민하여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